



## 다식·강정·한치...군침도는 작품이 되다

이애섭과 제자 25명 첫 사제전 '전통음식에 현대를...'



광주시 무형문화재 음식명인  
한과에 현대의 멋 가미  
'한치 봉황' 등 12 작품  
27일까지 무등갤러리

'모양 깨알강정'



남도전통음식문화연구원 개관 기념촬영을 하는 이애섭(가운데 녹색옷)과 제자들.

한입 깨물면 고소한 향이 온 입안을 감돌 것 같은 깨강정. 쫄쫄득득하면서 달달한 맛에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약과.

18일 방문한 무등갤러리에서는 알록달록 음식 향연이 펼쳐지고 있었다. 입구부터 탁자 위에 정성스레 차려놓은 음식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다양한 색채로 물들인 다식은 실제 나무줄기와 만나 꽃으로 다시 태어났고, 규칙적으로 놓인 강정은 활짝 핀 공작새 날개가 됐다. 가까이 눈을 가져다 대고 자세히 살펴거나 재료가 적힌 설명문을 보기 전까지는 설치작품으로 인식될 만큼 정교한 세팅이 었 보였다.

맛과 멋이 어우러진 이번 전시는 '2017 무형문화재 제17호 후당 이애섭과 제자들의 담음전-전통음식에 현대를 담다'이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전시는 이애섭(여·74) 음식명인(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 전통의례음식장)과 제자 25명이 참여한다. 그동안 이 명인은 김대중컨벤션센터 국제식품 등에서 여러차례 전시를 연 적은 있지만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제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지난해 개원한 남도전통음식문화연구원 설립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 명인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과에 현대의 멋을 가미해 발전해 가고 있는 음식문화를 선보이는 전시다"며 "혼자 전시를 열기 보다는 제자들을 참여시켜 현시대 남도 음식문화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소개했다.

작품은 12점이 출품됐다. 이 명인이 만든 한치봉황, 구절편을 비롯해 제자들이 4~5명씩 조를 지어 노력한 흔적들이다.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작품들은 별도 보존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쉽게 부패되지 않는 한과작품 위주로 선보였다.

천연 염색천 위에 놓은 이 명인의 한치 봉황 2마리는 정겨운 모습이다. 배치된 제자들의 작품은 '쉽.', '축하해', '꽃 피움', '봄바람' 등 다양한 제목들이 보인다.

이 명인은 제자들에게 마음껏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해보라고 주문했다. 제자들은 강정으로 봄꽃을 만들어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절편·다식 등을 접시에 한두 점씩 놓아 여백의 미(美)를 보여주기도 한다.

수십개 다식으로 밤하늘 별을 표현한 작품 '은하수'도 눈에 띈다. 동요 '반달'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 작품은 서쪽으로 별들이 흐르는 모습을 통해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기원한다.

전시를 관람하다 입맛을 다시는 관람객들을 위해 전시장 한켠에는 시식용 강정을 준비했다. 이애섭 통과리예음식 연구회가 만든 한과세트도 판매한다. 판매금 50%는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 명인에게서 5년째 음식을 전수받고 있는 김정혜씨는 "이 선생님은 조리 과정 하나하나 전통 방식을 고수하시면서도 현대적 표현 방식 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 열린 분이시다"며 "전시 준비 기간이 짧고 처음 선생님과 함께 하는 전시라 부담도 있었지만 제자들 모두 그동안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무난히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명인은 "제자들의 작품을 보니 그동안의 노력이 보여 뿌듯하고 보람있다"며 "이번 전시에 많은 분들이 오서 수준 높은 남도 음식 문화를 느껴 보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전통을 잇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격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236-25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김옥순 개인전 '꽃에 색을 입히다'

내달 1일까지 순천만 도솔갤러리

무심코 지나치는 양파꽃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있는 김옥순 작가가 3월1일까지 순천만 도솔갤러리에서 개인전 '꽃에 색을 입히다'를 연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양파꽃, 동백 등 다양한 꽃을 소재로 한 수채화 작품을 선보인다.

양파꽃이 등장하는 작품 '꿈꾸다', '희망', '평화', '물들다' 등은 작가의 추억이 서려있다. 작가는 어린 시절 들과 산에서 이름 모를 꽃들을 가지고 소꿉놀이를 한 추억 등을 작품 배경을 삼아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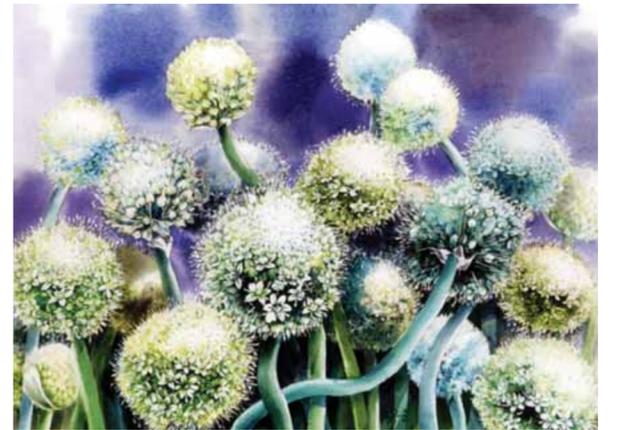
밭에 핀 도라지꽃, 속갯꽃, 대파꽃을 비롯해 특히 진정집 밭에 핀 양파꽃의 자태에 주목했다. 날마다 성장과정을 활

영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과 분위기를 작품 소재로 삼았다. 작가가 양파꽃을 보며 느꼈던 행복, 설렘, 희망 등을 전달한다.

또 눈 쌓인 동백, 화사한 분위기의 매화 등 다양한 꽃그림을 전시하며 봄을 맞이한다.

김씨는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지난해 조대미술 70년전, 4개 도시 순회전 '예술길따라 걷다', 수채화 확산전 등에 참여했다. 현재 물빛수채화회, 한국여류수채화회, 광주시·순천시 미술대전 추천작가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1-751-001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6월의 노래'

## 광주문화재단 생활문화예술활동·동아리지원사업 공모

광주문화재단이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동아리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28일~3월3일까지 진행한다.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지원사업'(총예산 3억6000만원)은 문화와 예술을 통한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이 대상이다. 9개 장르(음악·연극·무용·미술·사진·영화·문학·국악·기타 문화예술분야)를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80개 내외 단체를 선정해 지원금은 200만원~2000만원 범위이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지원사업'(1억

1000만원)은 10인 이상,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예술동아리 100여 개 단체가 대상이다. 최소 70만~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분야는 공연(음악·무용·영화·연극·국악)과 전시(문학·미술·사진·서예·미디어), 기타 분야다. 한편 오는 22일 오후 2시에는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지원사업', 23일 오후 2시에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지원사업' 설명회가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문의 062-670-744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기획전 22일~내달 19일, 청년작가 5명 참여

세계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동시대 현대미술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가 22일부터 3월19일까지 올해 첫 기획전 'New Version Language'를 연다.

이번 전시에는 손문일, 신승재, 정성윤, 정진서, 채지민 등 청년작가 5명이 참여한다.

작가들은 각자 다른 재료와 표현기법으로 독자적인 조형언어를 보여주지만 물질의 세계를 넘어 가치의 세계 회복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 주로 활동하는 손문일 작가는 의복의 패턴과 질감, 천이 형성하는 다양한 주름을 작품 소재로 삼는다. 작품 'Rela-

tionship-19'는 신체 동작에 따른 천의 주름을 보여주며 시시각각 변하는 인간 감정을 전달한다.

서울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 슬레이드 미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한 신승재 작가는 개인 내면에 자리한 경험과 사건을 사진, 회화 등 다양한 시각매체로 표현한다.

또 서울대학교와 영국 런던 첼시대학교를 졸업한 채지민 작가는 '실재'로부터 파생된 이미지를 평면 화면에 재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화면을 상하로 나누고 오른쪽에는 인물을 등장시킨 작품 '무제'를 통해 단순히 재현을 하는 이미지의 역할을 고민한다. 문의 062-613-83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승재 작 '당신을 세어 보세요'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아프리카 쇼나조각**  
양근리전시회  
- 500여점 전시 -  
장소: 세계조각·장식 박물관 (062) 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관현악관 18)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 제 보 청 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 도심속의 휴식공간
-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 신양파크호텔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